

중학 텍스트에 대한 다중 접근을 통한 시교육 방법*

김 창 원 (인천교대)

<차례>

1. 머리말
2. 시교육,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3. 중학 텍스트에 대한 다중 접근의 이론적 배경
 - 1) 심리적 배경 : 시교육 경로로서의 복합 지능
 - 2) 물리적 배경 : 시교육 체제로서의 컴퓨터 기반 문학 수업
 - 3) 수업 형태 : 시 교수·학습을 위한 소집단 활동
4. 중학 텍스트에 대한 다중 접근의 실제
 - 1) 수업 실천의 변인과 흐름
 - 2) 모듈별 활동 방안
 - 3)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유의점
5. 맺음말

1. 머리말

- 1) 문제 제기 : ‘왜 · 무엇을’에서 ‘무엇으로 · 어떻게’로의 전환

시는 인간 정신 활동의 한 정수를 이루며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시에 관한 능력은 지식인, 또는 교양인을 재는 척도가 되었고, 시 텍스트는 언어, 예술뿐 아니라 사고와 인성 교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 이 논문은 1999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되었다. ‘道’에 이르는 한 길로 시를 강조한 동양적 전통이나, 시민의 기본 자질로 시를 인정한 서구적 전통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시의 이러한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정치와 경제 논리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아무런 권력도 이익도 낳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시는 점차 일부 소수 계층만의 관심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소설이 몇 차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자기 변신을 통해 대중화·다매체 시대에 적응하면서 ‘신문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하지만 시를 둘러싼 상황이 이렇듯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시의 가치 자체가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는 여전히 언어 사용의 정수이자 예술의 핵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상력으로 대표되는 시적 사고, 고도로 응축된 언어로서의 시적 표현, 진실한 내면의 발견으로 일컬어지는 시적 성찰 등은 외적 상황의 변화를 견뎌 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시의 위축은 시 자체의 가치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시를 대하는 인간 - 시적 주체의 관점과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유교 이념과 도가적 사상을 엄밀한 형식에 실어 낸 한시가 개화기 이후 소멸해 간 것처럼, 서정성과 민족성의 논리에 기반을 둔 근대시도 80~90년대 변혁기를 거치면서 언어 현실 및 그 주체로서의 인간과 괴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근대시 초기부터 고급 지식인 문학으로 출발했던 시의 한계가 노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거에 시에서 얻었던 덕목과 가치들을 다른 데서 더 쉽게 얻는다. 굳이 ‘어렵고 모호한’ 시를 읽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를 떠받쳐 온 것은 언론·출판과 교육의 담론이다. 언론은 신춘문예 제도와 문화면을 통해서, 출판은 시집 간행과 문학상을 통해서 ‘시라는 제도’를 지탱해 왔다. 하지만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것이 교육이다. 교육은 끊임없이 시의 예비 독자를 길러 내고, 시의 가치에 관한 담론을 재생산해 왔다. 시 비평이 강단 비평 위주

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교과서의 정전이 문학사의 정전과 중첩되는 현상도 시의 중요한 존립 기반이 된다. 학교 교육이 시를 망쳤다는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이 없었다면 상황은 현재보다 훨씬 나빠졌을 것이다.

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도움 없이 시 스스로 활로를 찾아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시교육이 변해야 시가 산다는 뜻도 된다. 시교육이 여전히 한 세대 전의 시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

문제는 그 동안 시교육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시를 '왜' 가르쳐야 하며, 가르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한정돼 왔다는 점이다. 시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논의가 시교육론의 중핵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목표-내용에 대한 논의와 자료-방법에 대한 논의가 서로를 보완해 줄 때 시교육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시의 위축 현상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교육의 개혁을 통해 위축돼 가는 시를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 의도이며,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무엇으로(어떤 교재로) 어떻게(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하는 실천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가 된다.

2) 연구 방향 : 시교육의 다원적 관점

시교육에서 '무엇으로-어떻게'의 문제는 '왜-무엇을'에 관한 질문의 외화라고 할 수 있다. 목표와 내용에 따라 자료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동안 시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는 철학적, 이론적 수준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는 듯하다. '바람직한 주체 형성'이라는 전제 아래 시적 사고, 시적 언어, 시적 문화의 측면에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김창원, 1994; 최미숙, 1997; 최지현, 1997; 윤여탁, 1998) 그러한 담론의 이면에 개재하는 이데올로기 문제도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정재찬, 1996) 그 결과 감상 위주

의 교육에서 창작-수용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유영희, 1999), 신비평적 분석주의를 넘어서는 종합적 관점도 강조되었다(권혁준, 1996).

그에 비해 시교육의 자료와 방법에 관해서는 이론화가 더딘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인상주의와 형식주의적 방법에서 출발하여 수용론적 관점, 해석학적 관점, 기호론적 관점, 대화적 관점 등의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었으나, 교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부적합하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경우가 많고, 방법을 뒷받침할 자료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시교육의 자료가 문학적 기준에서만 선정되어 교육 효과를 충분히 얻기 어렵게 되고, 학생들은 문학사적 지식과 시 작품의 분석·암송이 시 학습의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며, 자연히 시교육의 효과가 사회로 까지 전이·확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김창원, 1997a). 시교육에서 교수·학습 이론의 부재가 시교육의 왜곡을 낳고, 나아가 시의 불안까지 가져온 것이다.

교수·학습 이론의 부재 현상은 어느 정도 '시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에 기인한다. 일급의 비평가나 시인에게서도 그런 선입견을 발견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교사들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 '좋은 작품을 많이 읽게 하는 것'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학습의 책임을 전적으로 학습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시적 재능'이 없다고 판단되는 많은 학생들을 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학습자의 선천적인 소양을 넘어서는 교육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논쟁과는 별도로, 이상적인 환경과 자료, 매체, 방법을 동원하면 자연적인 발달보다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교육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시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 동안의 시교육 연구에서 중핵 텍스트와 유사한 접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교재론 일반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여 시교육을 위한 중핵 텍스트의 원리를 구안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아야 한다.' '전이력이 있

어야 한다.'와 같은 당위 명제들은 꼭 짜여진 학교 교육 체제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다중 접근 역시 마찬가지여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학습자의 창의성과 개성을 강조한다.'는 정도의 명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접근 경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목표별, 단계별, 텍스트 특성별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천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교육 연구에서 보다 정교한 이론과 방법론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문학, 심리학, 교육공학을 연결하는 간학문적 관점을 추구한다. '중핵 텍스트'와 '다중 접근'이라는 기본 개념이 그러한 관점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교재론과 교수·학습론을 포괄하고 있기도 하다. 그 핵심에는 문학교육학이 있지만, 문학교육학의 명제들은 상위 심급에서만 내면적으로 원용될 것이다. 그리고 시교육에 관해 새로운 이론 체계를 모색하거나 구체적인 교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대신, 주변 학문의 연구 성과 중 시교육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념들의 효용성 검증에 초점을 둔다.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현장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그 작업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2. 시교육,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교육의 실천적 문제는 '어떤 교재로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교재 구성에서의 핵심 작업은 작품 선정과 학습 활동 구상이며,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작품을 중심으로 한 교사의 교수와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다. 말하자면 '무엇으로-어떻게'의 문제는 시교육의 교수·학습 이론화에서 중추를 이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시교육의 방법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시의 총체성을 보장하면서 '무엇으로-어떻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것이다. 그 길은 다원적일 터인데, 그 동안의 시교육 방법 연구는 다원성을

외면하고 어느 한 가지 이론으로 일관하거나, '무엇으로'와 '어떻게'의 문제를 분리해서 따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해당 연구에서는 정합성을 지니던 논의들이 다른 장에 가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난점을 낳았고, 각각의 이론들이 생산적인 경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되어 나열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그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중핵 텍스트(Core-texts)'와 '다중 접근(Multiple Approaches)' 이론을 구상한다. 중핵 텍스트는 '무엇으로'에 관련되는 개념이고 다중 접근은 '어떻게'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이 둘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시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이론(Methodology)을 개발하는 것이 이 논문의 실질적인 목표이다. 그 중심 개념은 복합 지능(Complex Intelligence)과 컴퓨터 기반 문학 수업(Computer Based Literary Instruction), 그리고 소집단 활동이 될 것이다. 그러한 개념들을 한데 묶어 내는 관점은 총체적 시관(詩觀)과 다원적 시교육관이다.¹⁾

1) 시교육에서의 중핵 텍스트

학교 교육이 제도화된 이래, 학교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오늘날 학교에서 깨치고 익혀야 할 지식, 기능, 경험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다. 평균 교육 기간이 계속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학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학교는 그러한

1) '총체적 시관'은 시를 인간의 사고·언어·문화 활동의 총체인 동시에 인지적·정의적·의사소통적 활동의 총체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유목적적인 행위 중 총체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나 시교육은 은연중에 그러한 총체성을 문학성 혹은 예술성으로 대치해 온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그 결과 시교육이 지녀야 할 다원적 특성을 외면하고 언어, 혹은 심미적 경로로만 접근해 들어갔다. 하지만 시교육은 교육 현상의 다양한 국면에/에서 투입될/이루어질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시텍스트(작품)가 없는 시교육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시와 관련된 인간의 활동을 다양한 장(場)에서 기술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다원적 시교육관으로 나타난다. 다원적 시교육관은 시 자체의 총체성을 넘어, 인간이 시를 '하는' 다양한 국면을 강조한다.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교과과정을 확대해 왔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는 것은, 각각의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는 뜻이 된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빼 버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 있는 한, 교과 내용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단위 시간의 축소를 초래한다. 줄어든 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질의 심화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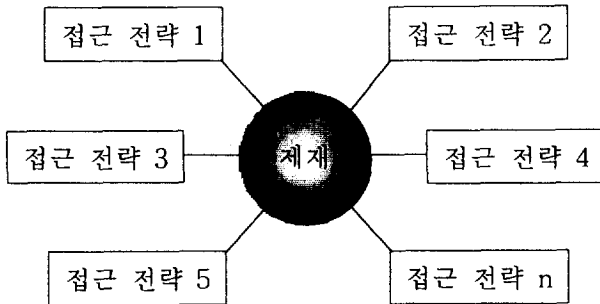
시교육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과거에 비해 국어과 전체의 이수 시간이 줄어들고, 4차 교육과정 이래 국어과에서 '문학' 영역의 비중이 1/6로 고정되며, 장르별 접근에서 활동별 접근으로 교재 체제가 바뀌면서 시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현재(6차 교육과정기) 쓰고 있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경우 현대시는 단 5편이 실려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핵 텍스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순히 작품성이 뛰어나고 문학사적 가치가 높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²⁾ 작품 선정에서 대표성, 전이성 등의 용어가 이런 의도로 쓰여 왔지만, 그 개념 범주가 모호하고 판단 조건이 불명확해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시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하여 중핵 텍스트의 조건을 분명히 하고, 중핵 텍스트와 중핵 텍스트, 중핵 텍스트와 부가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며, 텍스트 투입 전략을 정교화할 때 소수의 작품을 제재로 한 효과적 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중핵 텍스트의 조건은 무엇보다도 다중 접근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 사고, 문화의 제국면에서 다층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접근을 용인할 때 중핵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님의 침묵'을 예로 들면, 학교에서는 '님'의 의미를 구원의 여인상, 조국, 부처로 해석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었는데, 이는 이 작품이 세 방향에서의 접근을 견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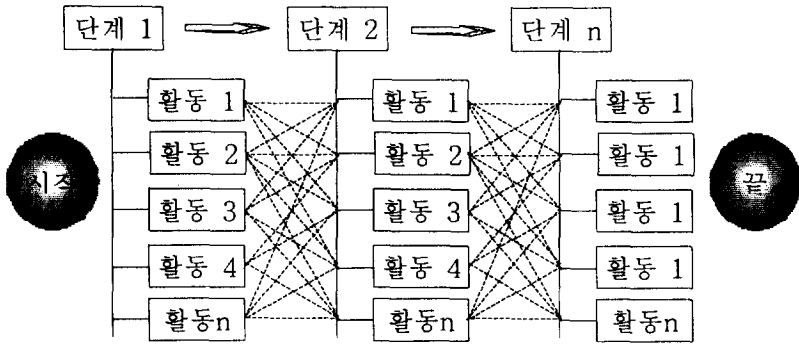
2) 이는 '문학 정전'과 '교육 정전'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접근 전략은 문학 소통의 여러 구성 요인 중에서 작가와 배경 요인만을 강조한 것으로, 여타의 다른 요소들에 착목한 접근까지 견디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모든' 접근 전략에 견디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작품도 있을 수 없지만, '보다 다양한' 접근에 견딜 수 있는 작품이 필요하다.



<중핵 텍스트의 공간적 구조>

중핵 텍스트는 작품뿐 아니라 교재의 개념도 포괄한다. 종래의 교재는 수업 시작에서 마무리에 이르는 과정이 단선적(單線的)이고 계열적인 구조로 이루어졌지만, 중핵 텍스트는 다성적(多聲的)이고 입체적인 구조를 추구한다. 국어교육의 다른 영역도 그러하지만, 특히 시교육에서는 단선적 접근이 지니는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 학습'이나 '발전 학습'과 같은 활동을 넣더라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 다양한 활동에 의한 접근을 병치하고, 하위 활동들 사이에 자유로운 연결(link)이 가능하게 하며, 텍스트의 구심력과 활동의 원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김창원, 1994) 설계한 교재가 중핵 텍스트이다. 여러 선택 학습들 사이에서 학습자의 수준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조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핵 텍스트의 이상이다.



<중핵 텍스트의 시간적 구조>

2) 시교육에서의 다중 접근

시교육은 언어, 사고, 문화의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폭넓은 직·간접 경험과 관련된다. 한때 분석적 접근이나 반응 중심 접근 방법이 시교육을 지배한 적이 있지만, 하나같이 단면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시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데 실패했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이나 홀리스틱(Holistic) 교육, 열린교육 이론은 저학년 단계에서만 통용되는 한계가 있고, 의사소통 이론이나 문화 이론도 그 이름에 값하는 편향성을 지닌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몇 편 안 되는 작품으로 시교육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시에 관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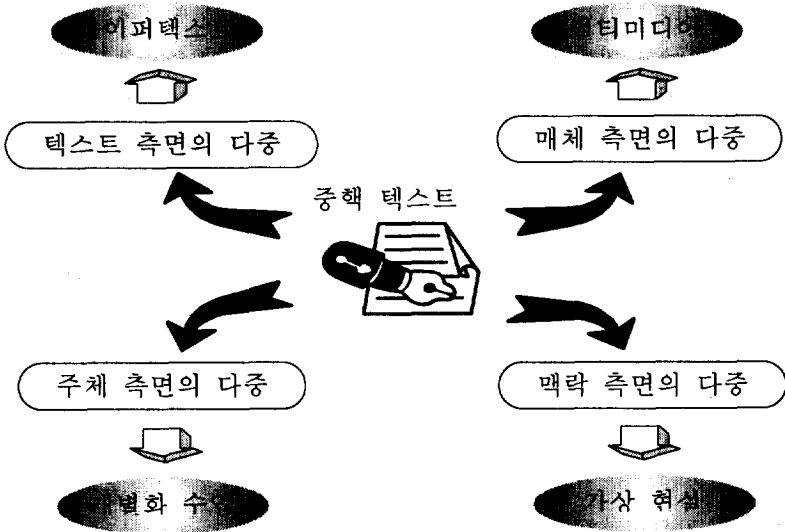
시교육에서의 다중 접근 전략은 인지 과학과 의사소통 이론, 문화 이론, 그리고 정보 공학의 발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중 지능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병렬 처리 과정, 정보와 정보의 간섭 효과, 도식화된 레지스터 활용 등은 인지 과학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고, 양방향의 실시간 의사소통, 하이퍼링크에 의한 비선형적 텍스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중 감각 체계 등은 의사소통 이론의 주요 관심사이다. 또 대중·대량 매체의 다양한 활용, 길드(Guild) 체제를 적용한 발견적 협력 학습, 대안 문화 현상 등은 문화 이론에서 주목한다. 웹을 기반으로 한 교재 개발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는 정보 공학의 뒷받침을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것들의 물리적 혼합만으로 다중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다. 무의미하게 나열할 경우 오히려 초점이 흐려지고 시교육이 표피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시텍스트의 소통 특성상 시교육에서의 다중 접근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주체, 매체, 맥락의 네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하이퍼텍스트로 대표되는 변형 가능한 텍스트, 발달 단계와 취향 및 시적 능력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학습 독자, 멀티미디어화된 텍스트 제시 방식, 현실-가상을 결합한 다양한 시적 맥락 등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다중 접근 체제를 구성하고, 그 체제 안에서 학습자는 충분히 깊게 시를 배우게 된다. 3) 비록 배운 작품 수는 적을지라도 그 효과가 넓고 깊도록 하는 데 다중 접근 전략의 초점이 있다.

다중 접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전 학습이 필수적이거나, 현실 여건상 그에 투입할 시간이 적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복 학습 모델을 끌어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과가 심화·보충형으로 편제된 이유는 학습 내용이 반복되고 위계화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이인제 외, 1997). 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학년별 학습 위계는 논리적이기보다 경험적으로 결정되고(김창원, 1997b) 비슷한 학습 활동이 반복된다. 위계를 결정하는 것이 학습 내용이라기보다 텍스트라면⁴⁾, 전(前)학년의 학습을 사전 학습으로 재배치하면서 활동의 폭과 깊이를 확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
- 3) 기존의 교재 구성 방식과 비교해 보면 다중 접근 전략의 특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기존의 교재는 주의깊게 선정되고 단선적으로 고정된 텍스트, 한 학급을 하나의 학습 단위로 상정한 수업 설계, 문자 중심의 외형, 그리고 작가의 창작 배경 및 과정에 초점을 둔 시적 맥락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재는 사전에 의도된 활동만을 요구할 뿐이며, 설령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요구하더라도 그 반응폭은 허용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4)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자의 대학원 강의에서 초등학생의 독서물 위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학성이나 문학적 장치보다는 일반적인 독서 난이도와 재미가 위계화에 끼치는 영향이 더 컸다. 이는 문학교육의 위계화가 학습 내용이나 활동보다는 학습 자료(작품)에 더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암시한다.



<중핵 텍스트에 대한 다중 접근의 개념도>

3. 중핵 텍스트에 대한 다중 접근의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배경 : 시교육 경로로서의 복합 지능

다중 지능(MI: Multiple Intelligences)에 관한 이론은 Gardner(이경희 역, 1993)가 제안한 이래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유·초등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수용되었고, 최근에는 중등교육 및 각 교과교육으로 확산되고 있다. 5) 지능의 구성 요인 간 관계라든지 측정 방법 등의 측면에서 모

5) 가드너의 다중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되 실제 사고 과정에서는 체계적으로 작용하며, 각 요소의 중요도는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그가 제시한 여덟 가지는 ① 언어 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② 논리-수학 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③ 음악 지능(musical intelligence), ④ 공간 지능(spatial intelligence), ⑤ 신체-운동 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⑥ 대인 관계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⑦ 개인 이해 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⑧ 자연 관찰 지능(naturalist intelligence)

호하다는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그 동안 언어, 수리 영역에 치우쳐 왔던 지능 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돌려놓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시교육은 언어 기호의 논리적, 분석적 성향과 시적 정서 및 상상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려 왔는데, 인간의 심리 특성을 다면적 관점에서 논의한 다중 지능 이론을 원용하면 그 요동을 제어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다중 지능 이론에 의하면 지능이란 특정 문화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혹은 문화적 산물을 창출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를 파악한 후 목적을 설정하여 그 목적 달성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고, 문화적 산물은 지식을 탐구하고 전달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관점을 표현하면서 생겨나는 결정체이다(Gardner/김명희·이경희 역, 1998:38). 시적으로 사고하고 시적 표현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도 확산된 문제 해결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수업 과정에서 활용하는 시 작품은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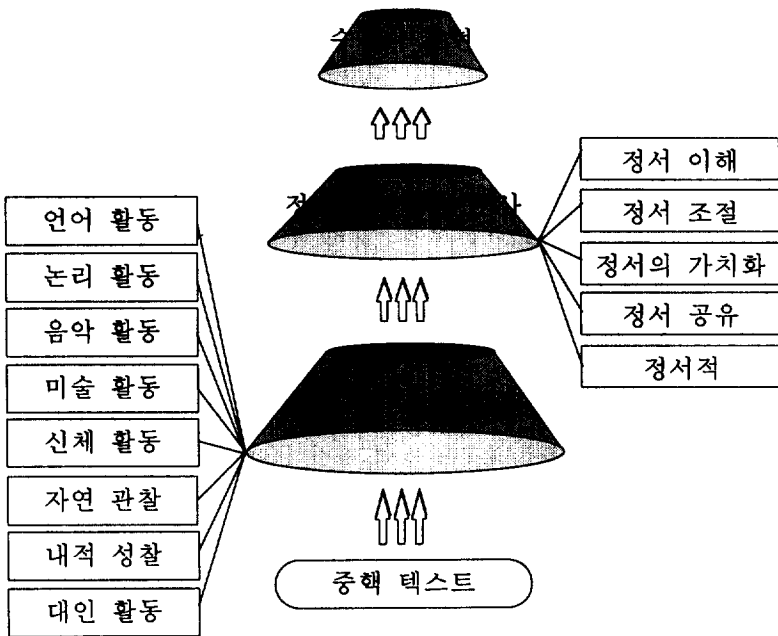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여러 영역의 지능은 논리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드너는 음악 지능의 경우 들겨 나팔 소리와 음악 작품을 예로 들어 정서적 성향을 설명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용한 것이 EQ(Emotional Quotient)나 EI(Emotional Intelligences)로 알려진 Goleman의 정서 지능 이론이다.⁶⁾ 물론 Salovey와 Mayer가 최초로

- 나중에 추가)이다.

6) 폴먼의 정서 지능은 아래와 같은 다섯 요소를 포함한다.

- ① 자기 정서의 이해(Self-awareness) :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을 인식하는 능력
- ② 자기 정서의 조절(Self-management) : 자기 지각에 기초하여 정서를 적절하게 전환하고 조절하는 능력
- ③ 자기 동기화(Self-motivating) : 자신의 정서를 생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렬하는 능력
- ④ 타인의 정서 이해(Empathy) :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서적 경험을 하며 그를 표현하는 능력
- ⑤ 대인 관계 다루기(Social skills) : 다른 사람의 정서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환하도록 하는 능력

제시한 EQ는 사회 지능의 한 하위 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점검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며 사고와 행동에서 정서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다분히 윤리적인 능력을 의미했다(문용린, 1998). 여기서서는 그것을 정서적 측면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자 한다. 다중 지능에 바탕을 두어 정서 지능으로 확장되는 지능을 복합 지능(Complex Intelligence)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접근 경로가 생긴다?)



<복합 지능의 작용 경로와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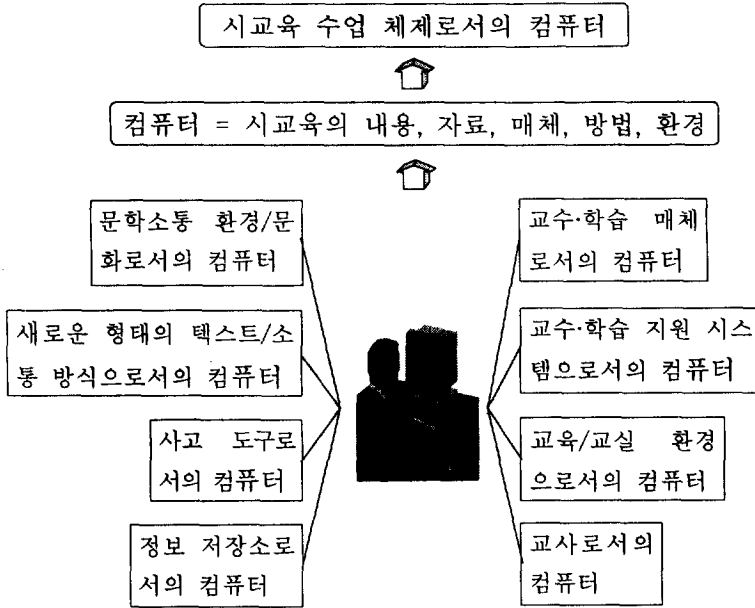
7) 여기서서는 복합 지능(complex intelligence)과 다중 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다중 지능이 지능의 '영역'에 관한 개념이라면 복합 지능은 지능의 '층위'에 관한 개념이다. 여러 영역의 다중 지능이 논리적, 정서적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복합 지능이라고 보는 것이다. 가드너는 다중 지능의 각 영역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복합 지능에 관해서도 같은 관점을 취하기로 한다. 곧, 복합 지능은 통합적인(integrated) 지능이 아니다.

2) 물리적 배경 : 시교육 체제로서의 컴퓨터 기반 문학 수업

컴퓨터 기반 수업(CBI: Computer Based Instruction)은 컴퓨터 보조 수업(CAI)이나 컴퓨터 활용 수업(CMI), 멀티미디어 기반 수업(MBI), 웹 기반 수업(WBI) 등의 유사 개념들을 포괄한다. 곧, CBI는 컴퓨터를 가상 교사이자 교수 매체, 그리고 교수 환경으로 활용하는 일체의 수업 시스템을 뜻한다. 특히 국어과의 경우에는 언어 텍스트로서의 컴퓨터와 언어 환경으로서의 컴퓨터, 의사소통 및 사고 도구로서의 컴퓨터 개념이 더 추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교육에서의 컴퓨터 기반 수업(CBLI: Computer Based Literary Instruction)을 상정할 수 있다. CBLI는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CALL: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의 연장선상에서지만, 언어교육과 문학교육이라는 출발점의 차이 이외에 CALL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문학교육의 특성상 교사, 학습자, 텍스트 사이의 심미적인 상호성을 강조한다는 점, 컴퓨터를 단지 교수 매체가 아니라 하나의 문학적 조건(Base)으로 간주한다는 점, Cyber 문학에서 보듯이 컴퓨터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라는 점, 그리고 컴퓨터를 매개로 해서 포괄적인 문화 행위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CBLI는 시교육에서 매체나 방법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수업 체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상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은 여러 교과에서 시도되었고, 국어과에서도 실천적인 성과가 많이 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이론이 없다는 점, 그에 따라 다양한 코스웨어와 웹사이트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실제 효용성은 매우 낮다는 점, 그리고 현재와 같은 컴퓨터 활용법은 컴퓨터 및 매체 환경의 변화가 지닌 가능성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컴퓨터 기반 문학 수업의 틀로 본 시교육>

문학교육으로 초점화하면 그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서, 현재 문학교육과 컴퓨터의 접점은 웹을 활용한 문학 D/B 구축 및 활용과, 하이퍼링크를 바탕으로 한 (문학)지식 교육, 그리고 간단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감상·창작 교육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CALL이 기초 기능 교육 및 제2언어 교육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쌓아 가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나아가 음악교육이나 영상교육과 같은 인접 교과들이 보이는 가능성과도 대비된다. 그 이유는 '(글자로 된)작품 읽기'를 문학의 본령으로 보는 전통적인 문학관이 문학교육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학 환경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으며, 오늘날의 학생들이 자라서 문학 중추가 될 미래에는 그 변화가 더욱 현저해질 것이다. 따라서 문학과 매체 환경의 변화를 폭넓게 반영하면서 엄밀한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이론과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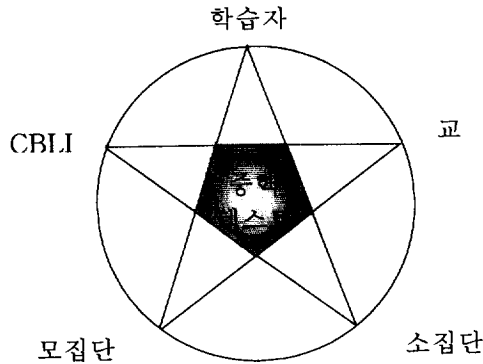
특히 비선형적 구조, 양방향성, 멀티미디어, 온라인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컴퓨터와 그에 부속되는 매체를 재조직, '시적 능력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이상적인 수업 사태를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제는 구체적인 시텍스트의 교수·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이 이론화되지 않아,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코스웨어가 전적으로 자본의 논리와 엔지니어 마인드에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 놓거나, 단순한 자극-반응과 시행착오-수정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컴퓨터 기반 수업은 금방 학습자를 지치게 할 뿐이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복잡하며 콘텐츠의 양만 많은 컴퓨터 기반 수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습자-교사의 수업 양식을 학습자-컴퓨터로 바꾸어 놓는 것은 수업 사태의 개선이 아니라 호도(糊塗)에 불과하다. 시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시의 총체성과 다원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컴퓨터 기반 문학 수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업 형태 : 시 교수·학습을 위한 소집단 활동

중핵 텍스트에 대한 다중 접근이 전통적인 '꼼꼼하게 읽기 (Close-reading)'와 다른 점은,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읽는 목적이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의 본질을 내면화하기 위해서'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 통합하는 총체적 접근법이나 음악/미술/연극 등을 활용하는 홀리스틱 접근법과 다른 점은 '여러 활동 및 감각을 관련시켜서' 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들을 점검하고 다양한 경로로' 시를 읽는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한 편의 시를 제재로 해서 시에 관해 모든 것을 얘기하려는 기획이 다중 접근이다. 학습자 개개인은 개별화된 수업 원리에 따라 본인의 수준과 취향에 맞는 활동을 하지만, 교실 전체로 볼 때에는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 활동의 총합이 시의 본질을 이룬다. 과연 그런 수업이 가능할까? 그 해답은 소집단 활동과 창의적인 탐구 학습에서 찾을 수 있다.

소집단 활동은 협동 학습 이론에서 다양하게 연구돼 왔다. 열린교육에서도 협동 학습과 코너 학습을 강조하는데, 다중 접근 전략에서는 집단의 크기를 줄이고(4명 이내) 8), 집단별로 개별화된 접근 전략을 강조한다. 각각의 집단은 일종의 길드(Guild)로서 다른 집단과 경쟁하면서 텍스트에 창조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전략의 비교 평가, 수정, 공식화(公式化)가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단일한 방법으로 텍스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다층적으로 적용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경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그 결과들이 공식화되면, '문학에는 정답이 없다'는 원리에 따라 소집단과 소집단, 혹은 모집단 단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학습 결과가 내면화됨으로써 중핵 텍스트에 대한 다중 접근이 마무리된다.



<소집단 활동에서의 관련 변인>

- 8) 집단의 크기를 4명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모둠의 최대 단위가 4명이기 때문이다. 한 명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고 다른 2~3명이 그와 함께 소집단 활동을 한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 컴퓨터 기반 학습에서 '1인 1대'의 개별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방과 후 교육이나 원격 교육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는 컴퓨터 대수가 부족해서 컴퓨터 기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는 뜻이다. 컴퓨터 대수는 학생 수의 1/4 이상만 되면 가능하며, 그 보다는 컴퓨터 사양이나 네트워크 속도 때문에 수업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집단 단위의 창의적 탐구 학습과 모집단 단위의 상호 교수이다. 어떤 경우든 교사의 자극·안내와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데, 특히 CBLI의 보조 및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 즉, 시교육을 위해 구축된 다양한 D/B들 - 기초 자료, 전문가 그룹의 해설과 안내, 온라인상의 동료 집단들이 하는 유사 활동 사례, 정부 혹은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학습 툴(Tools) 등과 E-mail이나 게시판과 같은 교사와의 비동기식 대화를 참조하여 소집단 활동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소집단 활동이 다시 컴퓨터를 매개로 상호 교류하면서 모집단 활동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시교육 D/B 망에 다시 투입된다. 결국 소집단 활동과 CBLI의 관계는 상보적이면서 상승적(相乘的)이라 할 수 있다.

4. 중핵 텍스트에 대한 다중 접근의 실제

1) 수업 실천의 변인과 흐름

다중 접근의 실천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교수·학습에 관련되는 제반 변인들의 다원화이다. 학습자는 한 편의 텍스트에서 여러 영역, 여러 층위에 걸친 다성적인 목소리를 듣고 그에 대해 다면적으로 반응하는데, 그러한 행위를 자극하고 유도하는 것이 다중 접근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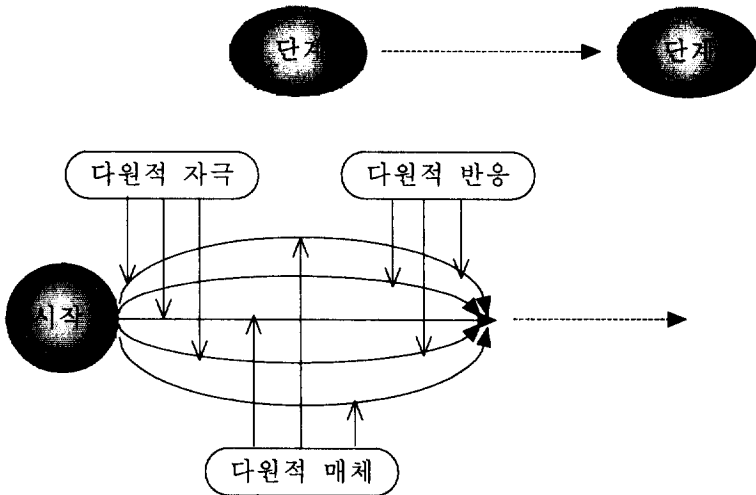
시텍스트 교수·학습 변인의 다원화는 자극의 다원화, 반응의 다원화, 매체의 다원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극의 다원화는 그 간 시교육이 주로 문자 자극에 의존했던 데에서 벗어나 문자와 함께 시각과 청각의 멀티미디어 자극을 추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선조적 자극을 하이퍼링크를 통한 입체적 자극으로 대신하고, 텍스트 한 편에 갇힌 단일한 자극 대신 다양한 텍스트들과 연결된 복합 자극으로 학습자를 안내함으로써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컴퓨터 기반 문학 수업이 자극의 다원화를 지탱해 줄 것이다.

반응의 다원화 역시 그 간의 시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제한된 반응

양식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반응을 요구하여 달성할 수 있다. 그 동안 시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인지적, 정서적, 윤리적)은 음성과 문자를 중심으로 한 언어적 반응으로만 표출되었다. 그러나 언어적 반응은 학습자의 반응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없고, 언어 능력과 문학 능력 사이에 간섭 현상이 일어나며,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약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언어적 반응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을 구체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 그 동안 시와 음악, 시와 회화, 시와 몸짓 등을 연결하여 반응을 표현하도록 하는 전략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고 교수·학습에서의 활용이 번거롭다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궁극적인 대안을 찾기 전까지는 복합 지능과 소집단 활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매체의 다원화는 앞서 본 자극과 반응의 다원화와 사실상 동치 관계이다. 시적 자극과 반응의 매체를 문자 언어 일변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따로 떼어낸 이유는 매체 활용이 다중 접근의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시교육에서의 매체는 패도, OHP, 녹음기 등 단일 감각 중심의 초기 매체를 거쳐 VCR, 영화와 같은 복합 감각 매체로 발전해 왔는데, 컴퓨터는 그러한 기존의 매체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멀티미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특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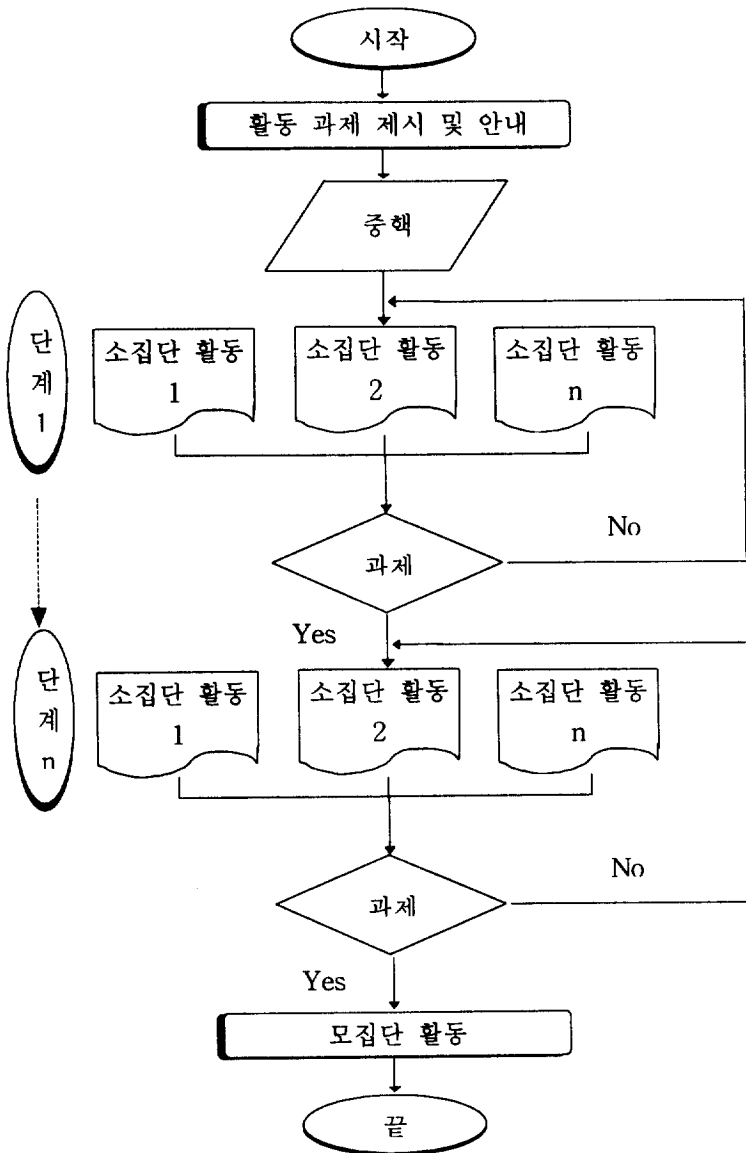
컴퓨터는 여타의 매체처럼 미리 정해진 콘텐츠를 수정 없이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준비해서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매체도 아니다. 그것은 조작이 쉽고, 학습자의 흥미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이 가능하고, 교수·학습 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또한 내용을 끊임없이(수업 과정에서조차)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여건만 된다면 모든 학습자에게 서로 다른 내용을 투입할 수도 있다. 곧, 자극, 매체, 반응의 다원화에 따라 교수·학습의 경로가 여러모로 갈라지는 것이다. 복합 지능이 그 중심에 놓여 있음은 물론이다.



<다중 접근 실천 과정에서의 변인들의 작용상>

이렇게 보면 복합 지능이나 컴퓨터 기반 문학 수업, 소집단 활동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제반 변인들의 다원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곧, 다중 접근은 여러 변인들의 다원화로 구체화되고, 심리적(복합 지능)·물리적(CBLI)·수업 형태(소집단 활동) 차원의 지원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관점과 개념들이 수업으로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상 중핵 텍스트와 다중 접근은 표리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 접근을 염두에 두고 중핵 텍스트가 구성되고, 중핵 텍스트의 구조에 따라 다중 접근의 전략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컴퓨터 기반 문학 수업과 소집단 활동 역시 서로 영향을 주며 지원하는 관계이다. 복합 지능은 다중 접근의 전제 조건으로서, 이들 또한 분리할 수 없다. 곧, 이들 관점과 개념들은 이론적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고 또 통합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다. 교육과정이 그들을 통합하는 축이 될 것이고, 실제 수업은 이론이 제시하는 의도와 전략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중핵 텍스트에 대한 다중 접근 수업의 흐름도>

이러한 여러 변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기(分岐)되는 수업 과정은 앞의 그림과 같은 흐름을 이룬다. 각 단계에서의 소집단 활동은 하나의 단위 모듈(module)을 이루고, 이들 모듈들이 선택적으로 연결되어 학습 집단마다 고유한 학습 경로를 형성하며, 그러한 모듈(노드)들과 경로(링크)들의 총합으로 시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것이 다중 접근의 원형(原型)이다.

2) 모듈별 활동 방안

중핵 텍스트에 대한 다중 접근은 단계별 모듈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모듈 활동은 복합 지능에 의거해서 소집단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안되며, 교수와 학습의 양면에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짜여진다. 각각의 모듈 학습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되, 단계마다 여러 개의 모듈이 마련되어 학습자가 다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각각의 모듈 활동은 다중 지능 활동을 정서 지능 층위로 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Campbell(1996, 김명희, 1998에서 재인용)은 국어 교과에서 제시할 수 있는 다중 지능 활동을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 ① 언어 지능 : 글·이야기 읽기, 발표, 낱말 맞추기, 문제 푸는 방법 설명하기, 에피소드 묘사하기, 설명서 작성하기 등
- ② 논리-수학 지능 : 조사, 문제 해결, 자료 해석, 인과 관계 분석, 차트 작성, 문학 작품의 유사점·차이점 분석, 이야기에 관한 미래 유추 등
- ③ 음악 지능 : 노래, 악기 연주, 소리 모음, 악보, 즉흥 작곡, 음악을 통한 시가 분석, 모스 부호 이용하기, 문법과 구문을 노래나 랩으로 구성하기, 음악을 이야기로 표현하기 등
- ④ 공간 지능 : 사진 에세이, 비디오 테이프, 시화, 포스터, 진흙 지도, 길 찾기, 이야기 단계 그림, 시각적 다이어그램 등
- ⑤ 신체-운동 지능 : 시뮬레이션, 역할놀이, 팬터마임, 즉석 무언극, 단어를 신체로 표현하기, 여러 물질이 되어 행동하기, 컴퓨터 작동법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등

- ⑥ 대인 관계 지능 : 협동 학습, 서로 가르치기, 지도력, 인터뷰, 춤 동작 설명,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기, 역사적 사건들의 영향력 토론하기 등
- ⑦ 개인 이해 지능 : 개인 일기, 자서전,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 나에 대한 시 창작하기, 느낌일기 쓰기, 타문화로부터의 통찰에 관한 일지 쓰기, 역사적 인물이라고 가정하고 쓰기, 자신을 등장 인물로 상상하기 등
- ⑧ 자연 관찰 지능 : 대상 묘사하기, 현상 설명하기, 이야기/글의 내용을 확인하기, 묘사나 설명의 정확성 판단, 관찰 기록문이나 실험 보고서 쓰기, 자연 현상에 대한 시 쓰기, 지시대로 실험·관찰하기, 자연물이 되어 생각하기 등⁹⁾

이처럼 다중 지능은 언어 활동의 전 영역에서 작용할 수 있으며, 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시는 텍스트 길이가 짧으면서도 해석 폭이 넓고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다중 지능 활동의 적용 폭이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다중 지능 영역에 대한 정서적 작용이 활발하여, 이 논문에서 의도한 복합 지능, 곧 다중 지능의 정서 지능으로의 투사 활동을 유도하기에 적절하다.

시교육이 시의 총체성을 구현하려면 교수·학습의 단계마다 복합 지능에 따른 단위 학습 활동(모듈)을 적절히 배치하고, 학습자의 선택에 따른 다원적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국어 교재는 시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데 미흡한 점이 보인다. 예컨대 교육부(2001)의 교과서의 시 학습 과정을 살펴보자.

9) Campbell은 가르너가 원래 말했던 일곱 가지 지능에 관해서만 예를 들었다. 자연 관찰 지능에 관한 활동은 연구자가 추가한 것임.

<읽기 전에>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글(책)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책)의 특징 :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어려운 글(책)의 특징 :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해 본 적이 있는가? 이산 가족들의 마음이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 만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자.

[‘호수’는 정지용의 시이다. 여섯 행밖에 안 되는 짙막한 시이지만, 그 속에는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이 녹아 있다. 차분한 마음으로 감상해 보자.]

<p>호수 -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하니/ 눈 감을밖에.</p>
--

<내용 학습> ‘호수’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얼굴 하나야’에서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지 생각해 보자.
2.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자기의 마음이 호수만하다고 하였다. 이 때, ‘호수만하다’는 의미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목표 학습> ‘호수’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해 보자.

1. 내 나름대로 이 시의 의미를 설명해 보자.
2. 이 시를 읽은 느낌이 어떠한가? 이 시가 마음에 드는가? 시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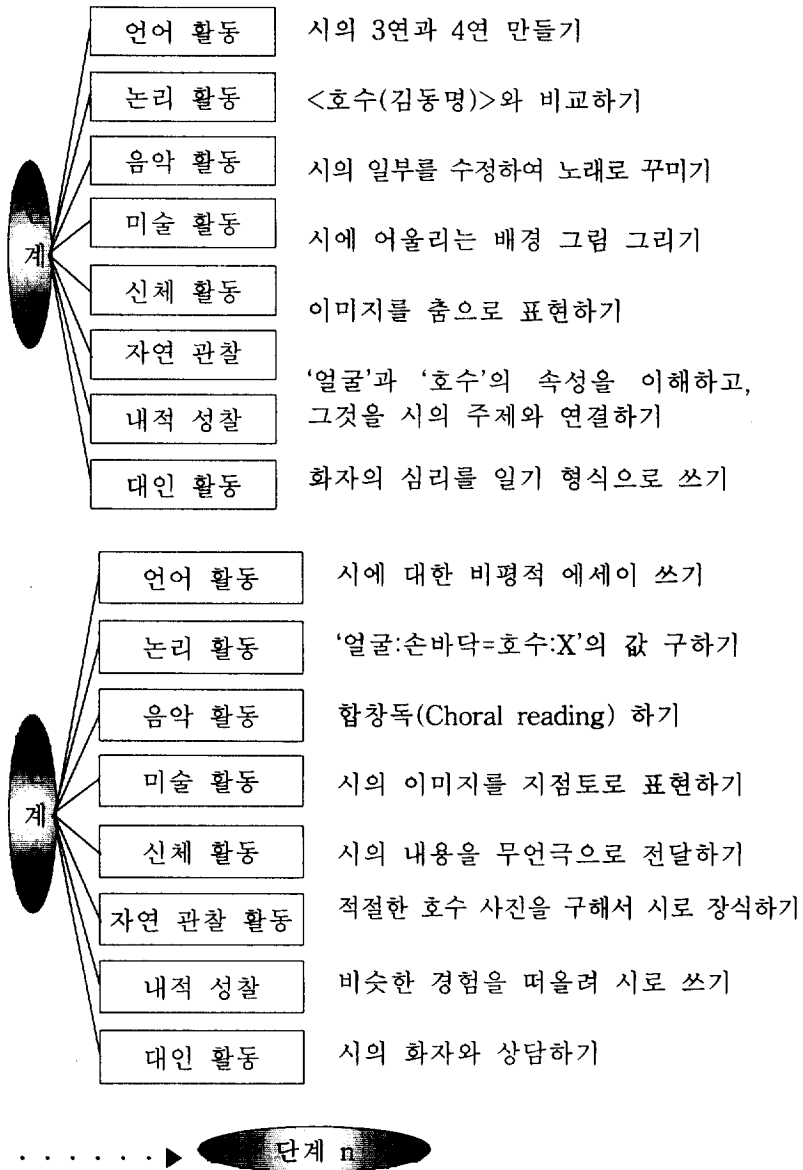
<적용 학습> 친구나 부모님처럼 내가 잘 아는 사람을 한 명 정한 후,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시로 표현해 보자.

이들을 모두 복합 지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읽기 전 활동>은 개인 이해 지능 및 대인 관계 지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내용 학습>의 '1'도 마찬가지로, '2'는 언어 지능과 연관된다. <목표 학습>의 '1'과 '2'도 언어 지능과 관련되는 복합 지능이며, <적용 학습>은 언어 지능을 대인 관계 지능과 통합하여 다루고 있다. 곧, 교육부(2001)의 경우 시 교수·학습이 대부분 언어 지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시(혹은 문학)를 '언어 사용의 특수한 양상'으로 보아 온 교육 담론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부(2001)는 시텍스트를 중심으로 사전 활동→중간 활동→사후 활동이 하나의 원리와 흐름을 견지하는, 단선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모든 학습자가 <읽기 전 활동>에서 출발하여 <내용 학습>-<목표 학습>-<적용 학습>의 절차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시된 학습 활동을 전부 해야 한다. 물론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은 달라지겠지만, 교재 자체가 이처럼 단선적이고 단일한 관점을 취한다면 그 적용태도 그와 유사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2001)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대안으로 나온 전국국어교사모임(2001)의 경우에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교재는 단원을 작품 중심으로 구성하지 않고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 '10. 나의 사랑, 나의 가족' 단원을 예로 들면 '(맛보기 활동으로)시 감상하기 - 가락 느끼기 - 장면 상상하기 - 심리 파악하기 - 시 쓰기(모방시→자유시) - 표현 익히기 - (마무리 활동으로)감상 쓰기'로 단원을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11편의 시를 제재로 실었다. 이 역시 수업 단계는 세분되어 있으나 각 단계내의 활동이 단일하여, 흥미로운 활동거리들에 도 불구하고 단선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음악 지능을 강조한 '가락 느끼기', 공간 지능이 필요한 '장면 상상하기' 등을 제외하면 언어 지능을 중심으로 개인 이해 지능, 대인 관계 지능을 덧붙인 것도 교육부(2001)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다중 접근은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앞에서 본 정지용의 <호수>를 자료로 하여 간단하게 예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호수>의 단계별 모듈 활동 예>

곧, 수업 전체의 흐름도에 따라 소집단별로 이들 활동들이 비선형적으로 조직되도록 구성한 것이 중핵 텍스트이며, 그에 따라 컴퓨터를 기반으로 다원적 자극과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한 것이 다중 접근이다. 여기서 각 영역의 하위 활동(모듈 활동)은 정서 지능으로 투사되어,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또 모듈 활동이 영역 간에 서로 겹치기도 하고, 가끔은 어느 영역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영역마다 고유한 활동을 구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영역, 층위에서 활동을 구안하는 다원적 관점이다.

3)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유의점

앞에서 <호수>에 관해 예시한 활동들은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이고, 그 외에도 얼마든지 다양한 활동을 구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들이 목표 중심적인 성찰 없이 단지 수업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쓰이거나, 단편적으로 적용돼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시적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적 능력’을 사고력 및 이해·표현 기능, 문화 소통 경험 등의 측면에서 상세화한 뒤, 그에 따라 이들 활동을 조직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중 접근 방식을 원용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업 준비 단계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협동하여 영역별로 다양한 활동을 구안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 활동, 논리 활동 … 등으로 초점을 분명히하면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 매우 다양한 활동들이 나올 수 있다. 이들 활동 중에서 발달 수준과 취향 및 수업 목표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고 배치하여 학습자의 복합 지능을 자극하도록 한다.

둘째, 각 단계의 모듈들은 특정 단계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시의 3연과 4연 만들기’가 1단계, ‘비평적 에세이 쓰기’가 2단계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학습자(혹은 소집단)에 따라서는 ‘비평적 에세이 쓰기’가 1단계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A

집단에서 1단계에 했던 활동을 B 집단에서는 2단계에 할 수도 있다. 이는 3단계 수업을 계획했다고 해서 $8(\text{영역}) \times 3(\text{단계}) = 24$ 가지의 활동을 모두 구안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이다. 가장 단순하게는 영역별로 하나의 활동만을 구안해서 소집단마다 단계별로 다른 영역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그러나 가능하면 영역마다 적어도 두 가지의 활동은 구안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영역에서 다른 활동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각 단계에서 여덟 영역의 활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하면 되며, 1단계에서 언어 활동을 했다고 해서 2단계에서 언어 활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1단계와 2단계의 활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인식해야 한다.

넷째, 각 모듈 활동은 소집단 활동을 바탕으로 한 상호 교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사가 여러 영역의 활동을 동시에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 교수 모형은 매우 유용한 수업 방식이다. 단, 자율적인 소집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활동 안내가 필요한데, 이 안내는 학습지, 컴퓨터, 사전 과제 등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 모듈 활동에서는 이해·표현이 모두 가능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1단계에서 필요한 매체와 2단계에서 필요한 매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기반 문학 수업은 그런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를 위해서는 교사가 사전에 콘텐츠와 알고리즘을 구안해 놓아야 하며, 기존의 코스웨어나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여섯째, 모듈 활동은 최대한 작게 세분하는 것이 좋다. 모듈 활동의 범주가 넓으면 활동 초점이 흐려지고 학습자의 학습 부담도 커진다. 5~10분 이내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야만 한 차시 수업에서 소집단별로 2~3단계 이상의 모듈 활동을 할 수 있다.

일곱째, 각 소집단의 활동 결과는 모집단에서 시연(Presentation)하도록 한다. 특정 모듈 활동 결과만을 시연할 수도 있고, 각 단계의 활동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시연할 수도 있다. 수업 여건상 매 집단마다 수행할 수 있는 모듈 활동은 생각만큼 많지 않으므로, 시의 총체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여러 집단의 시연을 선택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업 시간 외에도 교실 공간이나 특별 활동 등을 활용해서 시연할 수 있다.

여덟째, 모집단 활동은 제재에 대한 다원적 접근을 보여주고 시의 총체성을 인식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미 각 모듈 활동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그런 점을 강조했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새로운 텍스트에 다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아홉째, 소집단별 모듈 활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수업의 도입과 마무리 활동을 분명하게 해 줘야 한다. 모집단-소집단 활동의 기능을 인식하고, 수업 목표에 따라 메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현장 수업들이 세부 활동의 다양성과 창조성 구현에 몰두한 나머지 수업 전체의 맥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한 수업 단위가 꼭 한 차시 분량이라는 뜻은 아니다. 수업 단위는 2시간 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짝 짝여진 교육과정 체제 아래 이루어지는 시교육에 보다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 시적 영감과 감수성을 강조하는 인상주의적 방법이나 꼼꼼히 읽기 위주의 분석주의적 방법, 또 해석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수용론적 방법이나 다양한 텍스트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경험론적 방법들이 모두 시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최근에는 구조-기호론적 방법이나 문화론적 방법도 원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은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고 텍스트 특성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한계를 지닌다. 그 결과 학습자는 일종의 순환론적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곧, 텍스트 특성을 모르니 해석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해석 방법을 몰라서 텍스트 특성도 놓

치고 마는 것이다. 최근 현저해지고 있는 시의 침체는 이러한 시교육의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보면, 시교육은 단순히 '시'라는 하나의 담론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대비시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시는 인간 사고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시가 고도로 정제된 문화 현상이라는 점에서, 시교육은 언어와 사고, 문화 전반에 걸치는 전인적 인간 교육이 될 수 있다. 언어 표현과 이해의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시교육의 이러한 전인성을 놓치게 될 것이다.

다중 접근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교육은 사고 교육인 동시에 의사소통 교육이고, 또한 문화 교육이기도 하다. 아울러 시교육은 음악, 미술 등의 인접 예술 영역과 관련되며, 언어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기초 학문에서 방법적 시사를 얻는다. 또한 시적 활동은 문학 교과뿐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반 특성을 고려하고 구현할 수 있는 시교육이 다원적 관점에서의 시교육이다.

중핵 텍스트에 대한 다중 접근은 복합 지능을 바탕으로 소집단 활동과 컴퓨터 기반 수업을 통해 창조적인 발견 학습을 하도록 하고, 집단간의 경쟁과 보완을 통해 다양한 접근 전략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순환론적 딜레마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써 시교육은 단순한 '시 읽기'에서 '시 하기'로 바뀌고, 학습자의 창조적 수용과 표현 능력이 신장되며,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열린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교육과 다른 교과, 시교육과 시단(詩壇)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고, 시의 일상화, 내면화를 이룰 수도 있다.

이 논문은 다중 접근에 대한 개략적인 탐색에 그쳤다. 그 구체적인 실천상은 현장과의 연계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총체적 접근법이나 통합교과적 접근을 넘어서서(shift up), 시교육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다중 접근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방향은 결국 '인간은 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성찰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01), 중학교 국어 1-1, 대한교과서.
- 권혁준(1996), “문학 이론의 시교육적 적용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
- 김명희(1998),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열린교육의 수행 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결과 RR-5-5,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김명희 외(1999), 『다중 지능 이론을 적용한 통합 교육과정 개발 :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1998년도 교육부 열린교육에 대한 자료개발 및 교육정책 연구과제.
- 김영석(1997), 『멀티미디어와 정보 사회』, 나남출판.
- 김창원(1994), “시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
- 김창원(1997a), “독자들의 반란 - 대안문학이 왜 필요한가”, 『독서연구』 2, 한국독서학회.
- 김창원(1997b), “초·중등 문학교육의 연계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1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류현주(2000), 『하이퍼텍스트 문학』, 김영사.
- 문용린(1998), “정서 지능 연구의 현재와 미래”, 한국아동학회 기조강연.
- 박성익·강명희·김동식 편(1998), 『교육 공학 연구의 최근 동향』, 교육과학사.
- 변영계·김광휘(1999), 『협동 학습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유영희(1999),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 논문.
- 윤여탁(1998), 『시교육론』 2, 서울대출판부.
- 윤여탁(2000), “다매체 언어를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한국 현대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문학교육학』 6, 한국문학교육학회.
- 이성은(1994), 『총체적 언어교육』, 창지사.

- 이인제 외(199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연구보고 CR97-23, 한국교육개발원.
- 전국국어교사모임(2001), 「중학교 1학년을 위한 우리말 우리글」, 나라말.
- 정재찬(1996),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 논문.
- 최미숙(1997), “한국 모더니즘 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 논문.
- 최지현(1997), “한국 근대시 정서 체험의 텍스트 조건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 논문.
- Armstrong, T./전윤식·강영심 역(1997), 「복합 지능과 교육」, 중앙적성출판사.
- Campbell, L.(1996), *Teaching & Learning Multiple Intelligences*. Allyn and Bacon.
- Gardner, H./이경희 역(1993), 「마음의 틀」, 문음사.
- Gardner, H./김명희·이경희 역(1998), 「다중 지능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 Jonassen, D. H./김윤경·김영서 역(2001), 「학습과 교육 공학」, 한국문화사.
- Reid, J., P. Forrester & J. Cook/정수경 역(1999), 「교사를 위한 소집단 활동 운영 방법」, 정민사.

<초록>

중핵 텍스트에 대한 다중 접근을 통한 시교육 방법

김 창 원

시교육 연구는 그 동안 시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연구에 주력해 왔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시교육의 자료와 방법에 관한 연구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중핵 텍스트’와 ‘다중 접근’을 기본 개념으로 삼아, 시교육의 자료와 방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중핵 텍스트는 시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과 교재 구성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제한된 시·공간 내에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하였다. 다중 접근은 시교육의 교수·학습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중핵 텍스트와 표리 관계를 이룬다.

다중 접근은 심리적 측면에서는 복합 지능 활동을, 물리적 측면에서는 컴퓨터 기반 문학 수업을, 수업 형태 면에서는 소집단 활동을 추구한다. 이러한 방법들이 시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통합될 때 시교육의 본모습이 살아날 수 있다. 그를 위해서는 교수·학습을 위한 자극과 반응, 매체를 다원화해야 하며, 다중 접근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듈 학습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가 제시한 중핵 텍스트에 대한 다중 접근 전략은 ‘무엇으로’ ‘어떻게’ 시교육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제기 및 시안 탐색의 성격을 띤다. 실제 현장과 연계된 심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모형과 방법, 교수·학습의 원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시교육, 중핵 텍스트, 다중 접근, 복합 지능, 컴퓨터 기반 문학 수업, 소집단 활동, 모듈 학습

<Abstract>

Multiple Approaches of Teaching Poetry with Core-texts

Kim, Chang-Won

I argued about core-texts and multiple approaches of teaching poetry in this paper. Multiple approaches(MA) derived from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MI), computer based instruction(CBI), and small group learning activities(SGLA), will be able to develop methods of teaching poetry in various ways. And we can apply the MA to compile literature textbook with K-12 grades literary education as core-texts.

MA consists of many learning modules made by MI, performed SGLA based on CBI, and organize learning modules as nodes and hyper-links into instruction system. Therefore, an instruction goes on various way, and students can choice a module by their level and interest.

Multiple approaches of teaching poetry with core-texts would be an alternative proposal to improve the theory of teaching poetry. And it is able to realize the wholeness of teaching poetry and multiplicity of teaching-learning methods. MA theory will be useful in developing curriculum of teaching poetry, compiling textbook, and elaborating teaching methods also.

【Key words】 Teaching Poetry, Core-texts, Multiple Approaches, Complex Intelligence, Computer Based Literary Instruction, Small Group Learning Activities, Module Instruction